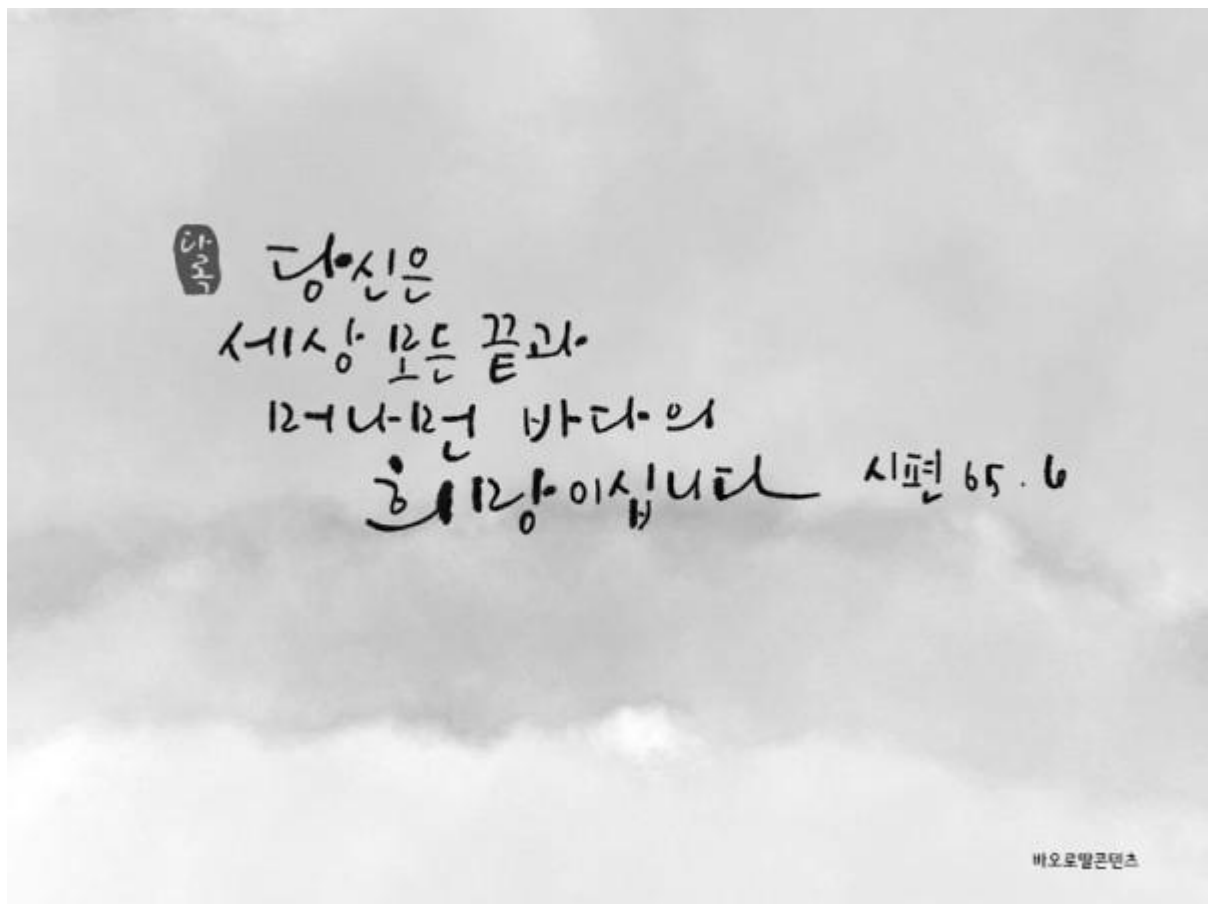


만남

2022년 6월
통권 20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특 쏘는 영성	-----	3
기도 맛들이기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5
영성의 숲	-----	8
영적 상담	-----	11
보물 창고	-----	13
성경 속의 사람들	-----	16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 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Schema®

✦ 웃음과 건강(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내장 상태와 같아서 웃지 않고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속병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옛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웃음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왕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솔로몬 대왕 말처럼 의기소침한 삶이 우리 뼈까지 마르게 하고 마음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한다면 배꼽 빠지게 웃어서라도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웃음은 호흡을 빠르게 해주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기게 하며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는 줄여준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 의사 이타미 니로 박사는 웃음의 중요성을 설파한 사람입니다. 그의 실험관찰에 의하면 환자들이 자주 웃으면 체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 활기차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상 세포, 즉 암세포를 공격하는 NK(Natural Killer Cell)세포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이타미 니로 박사는 20~62세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희극을 관람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극 관람 후 NK 세포가 정상치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웃음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보다 더 큰 공포심을 안겨주는 것은 암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어느 방송을 보나 암에 대한 이야기가 질리도록 나오니 무의식적으로 암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효과도 보장되지 않는 여러 처방을 따르다가 부작용을 갖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웃음은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가장 강력한 암 예방수단입니다.

병원에 우울한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습니다. 식사도 거부하시고 하루종일 병상에서 우울한 얼굴로 지내시는 분인데 유머 넘치는 원목신부가 방문했습니다. 신부는 쳐다보지도 않는 할머니의 병상 사진을 보고는 지나가는 말로 “어? 할머니 처녀 때 엄청 미인이어서~ 할머니 때문에 상사병 걸려 죽은 총각들이 수두룩했겠어요~”하곤 획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병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간 뒤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고는 희미하게 웃으시더니 식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험한 인생길에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때 경직된 기도나 명상은 그리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때는 무조건 어린아이들처럼 떠들고 놀면서 웃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나게 웃고 떠들 때는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과 몸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 아빠! 아버지!(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마태 11,25).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마르 14,36).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요한 17,1).

유다 문화 안에서 이 표현은 어린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정겹게 부를 때 사용하던 아람어 ‘아빠’(Abba)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소 지극히 친근하고 다정한 어조로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 하느님이란 존재는 꽤나 멀리 계시고, 무척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감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하느님은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다운 신뢰와 존경은 바람직한 기도 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골고타 언덕에서의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고스란히 예견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운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 온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살벌한 죽음의 현장,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루카 22,42).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하는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편리함이나 안락함, 만사형통이나 승승장구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주님의 뜻,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 끝에 이 기도를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을 앞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기도를 지양하고, 하늘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누워, 그 사랑에 몸을 맡기는 은혜의 때가 참 기도의 때입니다.”(‘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77가지 기도’ 하레사쿠 마사히데 신부, 생활성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요한 16,12-15)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99장 “주님 안에 하나”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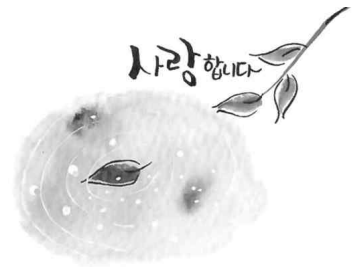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6 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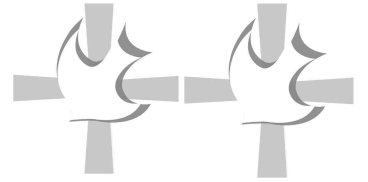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령께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체험을 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큰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제대로 알릴 수 없기도 하고, 알고 느끼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완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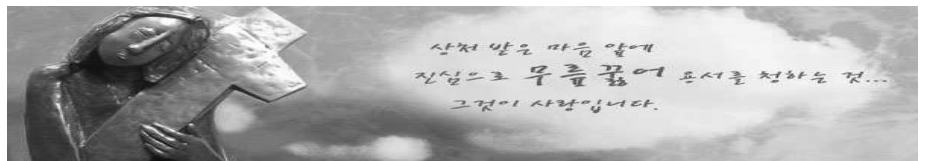
복음에서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을 앞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16,12) 3년간 함께 살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르쳐 주시기도 한 모든 것도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가올 수난과 그 이후의 말씀들은 더욱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과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할 말을 다 하시지 않고 감당할 만큼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어린 제자들을 염려하는 사랑을 느낍니다. 설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어둠의 세력이 너무도 강해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리기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내려 실천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를 깨달을 때 제자들은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스승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16,23)이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14,26)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16,13)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이십니다(14,6). 진리의 영과 진리는 하나이며, 그 진리는 당신을 보내신 분, 하느님께서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한 14,18)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함께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감당하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몫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곧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여 그렇고, 알지만 행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나’라는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성령의 보물(2코린 4,7 참조)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99장 “주님 안에 하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그리고 성모패(허윤석 세례자 요한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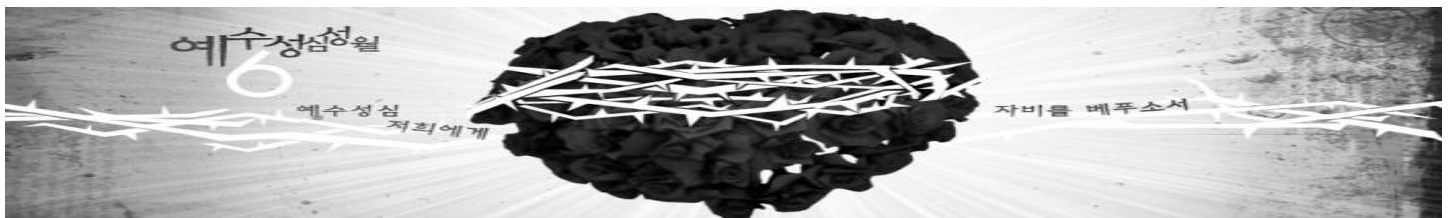
예수 성심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뒤 두 번째 주일에 이른 금요일에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냅니다. 모든 신심 행위 가운데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 단연 가장 널리 퍼진 신심 가운데 하나였고 또 그러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예수성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 그분의 존재, 가장 내밀하고 본질적인 그분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창조되지 않은 지혜, 무한한 사랑, 인간의 구원과 성화의 주역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심’은 그리스도이시며 강생하신 말씀이시고 구세주이며 본성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당신 형제들에게 무한한 신적 인간적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대중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166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빵과 고기를 건네주셨다고 성경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사랑의 행위로써 인간적 사랑을 인간행위로 표현된 그분의 사랑이며 그러한 사랑은 바로 당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서는 육화(肉化), 즉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육화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당신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조건에 맞추시어 당신을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시며 말씀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성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당신 형제들에게 무한한 신적 인간적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황님들께서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성경에 토대들 두고 있다고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서는(요한 10,30 참조)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과 긴밀한 친교를 이루며 당신과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당부하십니다. 예수성심의 표상은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서 이는 교회의 놀라운 성사를 상징합니다.(위 지침서, 167항)



교회는 예수성심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문이시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찢렸을 때 여러분에게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들어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창에 찢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로 여러분은 정화되고 그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 아오스딩, 시편상해, 138편)

많은 성인들이 예수성심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원천이시며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 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비의 자리, 약속의 땅, 참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성심에 대한 인식은 자비주일을 탄생시켰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신심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을 지냅니다. 이렇게 연이어 지내는 것은 그 자체가 이 두 날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전례적 표지입니다.

예수 성심의 신비는 예수님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제자이시도 한 성모님의 성심에 투사되고 반사됩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그 원천인 예수님의 성심에 환원시켜 종합적으로 기념하는 것처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도 강생에서 죽음과 부활, 성령을 보내주심에 이르기까지 성모님과 성자의 구원 활동이 맺고 있는 복잡하고 근원적인 관계를 기념한다. 1917년의 파티마 발현에 이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매우 널리 퍼져 나갔다.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 발현 25주년(1942년)에 교회와 인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였고 이 기념을 교회 전체로 확신시켰다.”(위 지침서, 174항)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대중신심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신심은 예수 성심 신심과 유사합니다. 개인과 가정, 수도 공동체와 국가의 봉헌, 기도를 통한 죄의 보속, 금욕, 자선 행위,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5개월간의 첫 토요일 신심 등이 그것입니다.

성모패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상이 새겨진 메달을 지니고 싶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께 바치는 공경의 표시이며 신앙의 증거이고, 그분의 모성적 보호에 대한 믿음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성모 신심의 징표들을 축복하며 “그 징표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을 기대하는 신뢰를 증진시켜 준다.”(축복 예식서, 1168항)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바치는 신심은 실생활의 증거를 요구한다고 지적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여러 메달 가운데 가장 널리 퍼

진 것은 ‘기적의 메달’입니다. 이 메달의 기원은 성모님께서 파리의 사랑의 딸회 수련자인 카트린느 라부레 성녀에게 발현하신 183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 메달은 성모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뛰어난 상징성 때문에 ‘성모님의 작은 세레’로 묘사됩니다. 기적의 메달은 부활의 신비와 예수 성심의 사랑과 성모님의 고통의 마음을 상기시키며, 또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중개 역할과 교회의 신비와, 천상과 지상의 관계, 현세의 삶과 영생의 관계를 뜻합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1941)은 이 기적의 메달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1917년 콜베 신부는 자신의 수도원인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젊은 수도자였을 때 로마에서 창설한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회’의 배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메달과 경배물과 마찬가지로 기적의 메달도 부적으로 여겨지거나 어떠한 맹신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 메달을 지니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것’이라는 성모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에 대한 겸손하고 끈기 있는 투신과 충실한 기도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위지침, 206항)



질문

저는 서른 살 청년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종교를 다니면서 길을 찾다가 성당에서 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한 어른들은 “믿음은 의문을 가지려고 하거나 물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한다.”며 “주님께서도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마음으로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품었기에 질책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구도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구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형제님의 마음가짐은 바른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말하기를 믿음은 ‘해답’인 동시에 ‘물음’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거나 혹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24시간 열려 있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들은 사랑, 용서, 행복, 상실, 두려움, 인내, 수용 등으로, 인간다워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마음도 유아적 상태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방랑자들입니다. 늘 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랑 수행자, 구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떠나란 말은 아니고 마음이 진리를 찾아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심리학자들은 방랑자의 원형은 인류 특유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 특유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 자리에 안주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퇴행하여서 고집스럽고 흥해져 갑니다. 방랑자들은 무언가를 배울 때 권위자들이 던지는 답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복종이나 경직된 도덕관은 길을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영성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새로운 도덕, 새로운 관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하고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의미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되면 방어기제 중에서 ‘내사’라는 방어기제,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 고문을 가하는 방어기제가 생겨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은 늘 우울하고 힘겨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고문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어느 시점에서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는 삶일까 하는 물음 - 그래야 하느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의 시는 힘이 넘쳤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내적 탐구를 하면서 삶의 활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회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 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 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집회 4,11-13).



* 상처 받은 신자, 상처 입은 사목자(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님)

교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쁜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피로감과 의무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신앙적 가치들보다는 세속적 가치들이 당장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일 의무를 지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이야기고, 조금 열심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대개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교회생활에 염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누구 보기 싫어서’ 성당 안 나가는 셈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 그대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 또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믿음을 살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 모두가 같은 뜻과 같은 지향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란 뜻도 숨어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이지만, 그 믿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 끼리는 얼마든지 서로 오해와 편견,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불완전성과 죄성은 교회가 지닌 인간적 요소로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것이지 교회의 구성원이 모두 거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면은 굳이 교회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고 오늘의 교회 모습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모두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신앙으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거룩함이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듯이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사는 줄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와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다 해도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티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회심과 숭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거룩한 것과 같습니다.

새내기 신학생과 새내기 신자

신학교에 처음 발을 딛는 새내기 신학생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착하고 흠 없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 이들뿐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동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다툼, 이제까지 살면서 익숙해진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새내기 신학생들이 이런 갈등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공동체 안에 있는 모순적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견디지 못하면 신학교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너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신심 좋은 신학생을 ‘상투스(Sanctus)’라고 별명지어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동료들은 오래가지 못해 신학교를 떠나곤 했습니다.

일반 성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환상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며 상처 받고 환멸을 느껴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신자라도 조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 받으며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심이 깊지 못하거나, 신앙의 뿌리가 없는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의 인간적인 결함과 잘못을 덮어주거나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동료들의 모습이 보기 싫어 교회를 떠나거나 냉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힘은 기도

상처 입은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에 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신자들의 3분의 2가 명시적인 가톨릭 신자로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와 관련을 맺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들 상호 간에 입은 상처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본당으로 미사를 참례하며 신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목적 배려가 지금으로선 없는 듯싶습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이나 신앙 쇄신을 통한 회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처 입은 신자들만큼이나 상처 입은 사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과거에 누렸던 지위나 축성된 그리스도의 사제들이란 신앙적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직 구교우들이 오랜 가톨릭 전통에 따라 사제들을 존경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정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제들이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자들은 사제들이 받은 사제직에 대해 깊은 존경심도 없고, 사제 개인의 인격적 결함과 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실수들을 덮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제들만이라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삶을 살아달라는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신자나 상처 입은 사목자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내가 상처 입은 것만 기억하고, 상처 준 일들은 빨리 잊거나 용서받으려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욕심 때문에 교회가 가진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너무 쉽게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힘과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심은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인, 기도할 줄 아는 능력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란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련 중에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후,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리고 당신의 전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하시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생활을 포기하는 이들이나 상처받아 쓰러져가는 사목자들,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주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런 시련 중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내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치유를 청하며 신앙을 청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듯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십시오.”(루카 17,5)라는 간절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아브라함(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가거라!” “그는 떠났다.”(창세 12,1.4)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모범, 아브라함, 그의 삶을 이 말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어법에 따르다 보니 ‘가거라.’, ‘떠났다.’라는 말이 문장의 끝머리에 오지만, 히브리말은 첫머리에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12,1) 모든 삶의 뿌리들을 떠나 미지의 땅,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람(17,5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은 아무런 질문도, 어떠한 요구도 없이 그냥 길을 나섭니다.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불확실함이 주는 불안을 그는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극복하고 주저 없이 떠나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느님께 대한 무한의 신뢰! 그것이 이제 그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의 뿌리가 되며, 그의 힘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말년에 무덤으로 쓰일 땅 한 쪽을 제하고는 어떠한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해, 스켄, 베텔, 네겔을 거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소돔 옆을 지나 마므레, 브에르 세바, 헤브론까지 거치며 그는 여러 위기와 사건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그네살이’(12,10; 15,13; 17,8; 20,1; 21,23.34), 그의 여정에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말입니다. 누구는 그의 이런 여정이 가나안 지역의 성소들을 방문하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떠돌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해서도 값을 치러야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21,25-34), 죽은 아내를 매장할 무덤자리를 사기 위해 지역 유지들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23,1-20).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야 했었습니다(12,10-20; 20,1-18).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이, 지지하는 이 하나 없는 외톨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갈 때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 등장합니다(창세 14장). 다른 임금과 협상도 합니다(21,22-24).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느님께 매달리기도 하고(18,16-33), 황홀경에 빠지거나(15,12) 다른 이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모습(21,17)도 보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12,7.8; 13.4.18). 사제, 예언자, 임금의 면면이 이 ‘떠돌이 유목민’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세력이나 힘이 있다거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그네-떠돌이를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제후”(23,6)라는 칭호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나그네살이 한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그에게는 늘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12,2)로부터 시작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느님의 말씀들이 그의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지만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손 후보 1위였던 조카 롯도 그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들(13장, 14장, 19장)은 롯이 분가해서 점차 다른 민족으로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가르와 이스마엘(16장; 21,8-21)도 떨어져 나갑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자손에 대한 문제는 하느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점점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신은 백 살, 아내는 아흔 살이라는 고령이었기 때문입니다(17,17). 그럼에도 하느님은 계속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15,4),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17,19). 마르레의 참나무들 곁에 나타나신 주님은 ‘내년 이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18,10)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사악’이라고 지어줍니다(21,2-3). 이로써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문제가 하느님의 개입으로 해결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함과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느님께 묻고 청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들과 대책들 모두가 부질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완성하십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 후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따르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우선 찾지는 않는가 물어봅니다. 신앙의 길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훈련의 길입니다.

❖ 6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유스티나	홍영숙
13일	안토니오	김현규
19일	율리안나	김효정
24일	세레자 요한	김성철, 김민규, 남궁경, 박진태, 최현봉, 박찬진
29일	베드로	김부남, 이영원, 최윤석
29일	바오로	송문규, 이민재, 배재현, 박종래, 최승진
29일	페트라	김상미
29일	파울라	최영자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3일	안토니오	문철주(H), 박일열(H)
19일	율리안나	송윤아(H)
21일	안셀모	이철민(H)
24일	카타리나	고희경(H)
29일	바오로	최한우(O), 임완규(O), 이범이(O)

❖ 6월 성가번호 ❖

6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142	214	501	148
12일	83	217	163	80
19일	162	54	198	202
26일	55	216	175	206



❖ 6월 전례 봉사 ❖

6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5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청년회
12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1구역
19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2구역
26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3구역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5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5월 15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Rabe, 강순행, 최장용, 영희 Eggerstedt, 김민옥, 이정수, 김경미, 최순남, 최장용, 손수희, 현영애, 심동근,

❁ 계좌 입금(5월 21일 기준)

허두옥,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종,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허선애, 이영원, 정정숙, 이성원, 김진호, 이석우, 옥수 Ranitzsch, 이경규, 김동수, 백정선, 김원자, 배성우, Caroline Tunas, 강일남, 최종금, 최성자, 춘옥 Zerbock, 남궁춘배, Alice Eilinghof,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5월 19일 자 통장 잔액은 27.107,72유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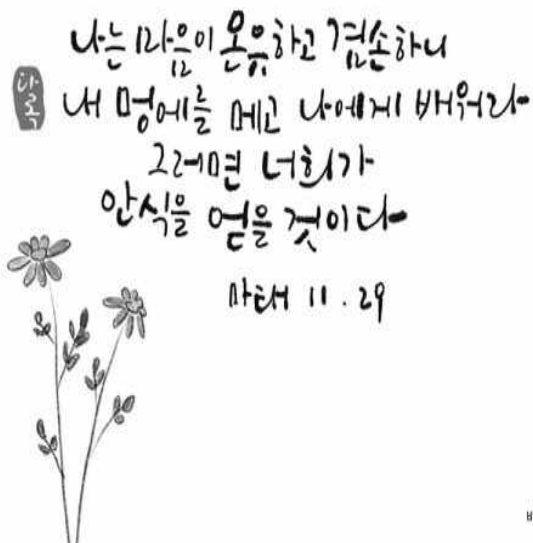
❖ Hamburg 공동체 소식

1.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과 은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 6월 5일 일요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해마다 이날에 본당의 날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에는 행사가 없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만큼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함부르크 대교구가 정한 Renovabis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기억해주십시오.
3. 6월 7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6월 24일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며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5. 6월 27일 월요일 10시 만남성당에서는 연령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6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하노버 공동체는 넷째 주 토요일에 봉헌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부회장	
				부회장	
				전례부장	
				총무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월요일 10시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가나(마르가리타)
구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정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6월(예수 성심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2	목			
3	금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단오
4	토			브레멘 공동체
5	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 행사 취소	
6	월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현충일, 망종
7	화		꾸리아	
8	수			
9	목			
10	금			
11	토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12	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년회 복음 나눔	
13	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	월			
21	화	하지		
22	수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23	목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24	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10시 만남성당 미사	사제 성화의 날
25	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하노버 공동체
26	일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27	월		연령회 월례회	
28	화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29	수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30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